

말레이시아	3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(정기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I	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---	------------------

1. 사라왁 주(州), 생우유제품 수입 당분간 중단
-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주(州) 수의서비스국(DVS)이 생우유 및 향이 가미된 생우유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 조치함
 - ‘생우유 수입 중단’(Suspension on the Importation of Fresh Milk) 이라는 제목의 통보 서한은 액상 우유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현지 수입업자들에게 2월 4일부로 전달되었음
 - 수출국의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우유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생우유 수입 규제가 필요하며, 우유가 구제역 청정 국가에서 생산되었더라도 구제역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가공처리 되었다면 사라왁 주 내로 수입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임
 - 사라왁에서는 200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, 이러한 청정 상태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고 있음
 - 구제역은 주로 태국이나 베트남 등 아시아 대륙에서 유입되므로 이번 수입 금지 대상 지역에는 말레이시아 반도도 포함. 이번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많은 신선 우유 제품이 사라왁 주로 반입되어왔음

* 출처 : 2019년 2월 12일, The Borneo Post

2. 아프리카 돼지열병(ASF) 예방 위해 돼지고기 수입 제한 확대
- 말레이시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(ASF)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초부터 예방 조치를 강화 중임
 - 살아있는 돼지 및 냉동 돈육의 유입만 제한하던 것을 아프리카, 중국, 몽골, 벨기에, 헝가리, 라트비아, 몰도바, 폴란드, 루마니아, 우크라이나, 아프리카

차드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생한 10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돼지 관련 제품에 대해 일시 금지조치를 확대함

- 해상 및 항공 노선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통한 돼지고기 제품도 해당 금지령 범위에 포함됨
- 검역소에서 승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압수 및 파기 조치되며, 2011년 말레이시아 검역 검찰국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됨
- 2018년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, 9월 7일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대한 임시 수입금지 조치 유지
- 말레이시아 반도에 소재한 총 102곳의 돼지 농장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으나 돼지열병은 쉽게 번지고 사망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임
-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말레이시아에 퍼질 경우 돼지 사육 업계에 약 27억 링깃 (약 7438억원) 가까운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-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 위험이 있는 제품으로는 살아있는 돼지, 신선 돈육, 냉동 돈육, 가공 돈육(훈제 돼지고기, 베이컨, 햄, 소시지, 통조림) 등이 있음

* 출처 : 2019년 3월, The pig site, The sun daily

3. 말레이시아 “팜유 제한 지속할 경우 EU 제품 보이콧 할 것”

-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자국 팜유에 대한 차별이 지속될 경우 유럽연합(EU)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함
- 지난 3월 20일 의회 로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하티르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EU 국가 수장들에게 말레이시아 팜유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이 지속될 경우 국가 차원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서한을 3월 19일자로 보냈음을 밝힘
- EU 집행위원회는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팜유 사용을 줄이는 법안을 마련, 2개월 이내 찬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
- 이 법안이 EU에서 통과될 경우 팜유의 사용은 2023년까지 올해 수준으로 제한되고 2030년까지 0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세계 팜유 생산의 80%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큰 타격을 입게 됨

- 완 이지스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3월 17일부터 4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하여 프랑스 의회 의원들과 정치인과 회동하고, 팜유에 대한 부정적인 캠페인을 통해 말레이시아 산림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상 말레이시아 국토의 53% 이상이 여전히 산림 지역으로 유지되고 있고 말라얀 호랑이나 오랑우탄과 같은 야생 동물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
- 이는 팜유를 생산하는 기름야자나무가 늘면서 과도한 산림 벌채를 초래해 산림 및 습지가 파괴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EU 측 주장에 반함

* 출처 : 2019년 3월 20일, The Star

4. 농업부 “코코넛 공급 과잉에도 수입 억제 힘들다”

- 말레이시아 현지 농민들에 피해가 예상되는 코코넛의 공급 과잉으로 수입 제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농업부(MoA)는 반발의 소지가 다분한 이러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함
- 주변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으로부터 수입된 코코넛이 말레이시아 현지산보다 더 저렴하여 현지 코코넛 공급업자들의 재고 처리가 문제되고 있음
- 말레이시아의 코코넛 수입은 지난 수년 동안 급격히 증가함. 2016년 1억3천만 킬로그램 수준이던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코코넛 수입량은 2017년에 이르러 1억 8천만 킬로그램으로 38.46% 증가. 2018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만에 전년도 한 해 동안의 총 수입량인 1억 8천만 킬로그램에 달함
- 코코넛은 승인허가(AP) 소지자만이 수입할 수 있으나, 말레이시아 농업부 당국이 얼마나 많은 AP를 발행했는지는 불분명함
- 국내산 코코넛이 판매 위기를 겪는 이유는 무엇보다 가격 경쟁에서 수입산에 밀리기 때문으로, 페낭 소비자협회(CAP)에 따르면, 현지 코코넛 가격은 보통 1.20~1.50링깃인 반면 인도네시아 수입 코코넛은 0.80~1링깃 수준에 불과함
- 품질 면에서는 말레이시아 산 코코넛이 수입산 보다 우위에 있고, 신선도 면에서도 더 낫지만, 이웃 국가들의 대규모 경작에 비해 말레이시아에서의 코코넛 농사는 중소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아 소비자 가격을 더욱 낮게 책정할 수 없는 상황임

- 말레이시아 코코넛 재배 면적은 2001년 151,004 헥타르에서 2017년 83,250 헥타르로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연간 4억 7,560만 킬로그램에서 5억 1,760만 킬로그램으로 늘어남
-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약 1억 1천만 킬로그램의 코코넛을 추가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
- 정부의 개입이 없이는 현재의 가격 격차로 인해 말레이시아의 소규모 코코넛 농가들이 코코넛 경작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

* 출처 : 2019년 3월 22일, The Edge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/주의사항

□ 對 말레이시아 식품 수출 시장에 대한 2018 미국 농무부 보고

- 시장의 개요
 -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시장 중 하나이며,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구는 약 3천 2백 만 명으로 점점 도시화되고 있음
 -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,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9,629달러로 인구의 절반이 중상위 소득 계층에 속함
 - 말레이시아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(55%), 제조업(37%), 농업(8%)임
 - 말레이시아의 엄격한 할랄 요건으로 인해 특정 제품의 수출이 어려울 수 있지만 국가 전반의 무역 및 규제 정책은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수입 식품 및 음료에 대한 기회를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음
 - 2017년 말레이시아의 총 농산물 수입은 160억 달러에 달함
- 식품 규정
 - 1983 말레이시아의 식품법(Food Act 1983) 및 1985 식품규정(Food Regulations of 1985)은 식품의 수입과 수출의 규정 및 절차를 통제함
 - 말레이시아 보건부(MOH) 산하 식품안전품질부서(FSQD)가 여타 관련 정부

부처와 협력하여 샘플링, 검사, 수입 통제 및 규제를 포함한 관련 식품법을 집행할 책임을 지고 있음

- 말레이시아에는 식품 및 농산물의 운송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 및 절차 중 특히 할랄 인증 및 낙농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강조하고 있음

(1) 할랄 인증 요건

- 소고기나 가금류를 포함한 식품은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함. 현재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(JAKIM)가 할랄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유일한 허가 기관임
- 할랄(Halal)은 ‘허용되는 것’을 뜻하는 아랍어로 ‘먹어도 되는 식품’을 의미하여,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, 도축, 처리, 가공된 식품과 공산품에 부여됨.
-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은 할랄 인증 제품만이 위생적이며 맛, 질, 신선도가 뛰어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믿고 있음

(2) 유제품 시설 등록 요구

- 말레이시아는 2018년 3월부터 유제품 외국 생산자 및 수출업자가 말레이시아 정부에 그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
- 수입 유제품의 추적성을 개선하고 수입 유제품이 할랄 인증을 받았는지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
- 새로운 규정 시행 이후 등록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조사 기간이 필요하지만, 말레이시아로 수출 이력이 있는 유제품 시설 등록 신청자에게는 신속한 검토가 제공됨

○ 시장 동향

- 말레이시아의 호텔, 식당 및 기관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며, 관광산업 발전 및 증가한 소비자 지출에 크게 좌우됨
-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관광 산업은 최근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현재 GDP의 약 15%를 차지함
- Euromonitor에 따르면, 말레이시아 호텔 및 레스토랑 업계는 지난 5년 간 54%가 넘는 실질 성장을 기록하였음
- 말레이시아의 소매 식품 부문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고급 식료품 점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음

○ 트렌드

- 말레이시아의 식품 서비스 산업은 거리에 노점상부터 풀 서비스 레스토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아시아 및 서양요리를 광범위하게 아우름
- 빠른 산업 성장과 고도로 도시화된 인구로 인하여 대중은 빠르고 편리한 음식을 선호하고 있으며, 이와 동시에 건강을 더욱 고려하여 유기농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음
- 비교적 젊고 교육받은 계층일수록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
- 현지 및 해외로부터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인터테셔널 브랜드 체인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호텔 시설은 JAKIM 할랄 인증의 제품만을 사용하려는 추세임

* 출처 : 2019년 1월 30일, 미국 농무부 발행 Gain Report

III

통관 보류 및 해결, 폐기, 반송 사례

□ 클란탄 주 국경보안국에서 비할랄 냉동육 적발 압수

- 말레이시아 검역당국(MAQIS)는 최근 클란탄 주(州) 마창(Machang) 지역 국경 보안국(AKSEM)이 실시한 수색 작업 중 현지 상인들에 의해 판매되는 냉동 육류 제품 중 비할랄(non-Halal) 제품을 적발함
- 검역 당국은 냉동 육류, 특히 냉동 닭고기 제품이 불법 여객선을 통해 밀수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현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함
- 적발된 냉동 육류는 포장에 할랄 로고가 프린트 되어 있었으나, 확인결과 할랄 증명서나 수입허가는 확인되지 않음
- 밀반입된 냉동 육류 제품은 태국에서 포장처리된 것이며, 주로 클란탄 주의 식당 및 푸드코트로 납품되어 온 사실이 밝혀짐
- 마창 지역에서 3월 5일 압수된 냉동 닭고기는 시가 20만 링깃(약 55백만원) 정도의 물량으로 알려졌으며, 이와 함께 냉동 닭고기 운반에 동원된 트럭 4대도 함께 압수됨

* 출처 : 2019년 3월 17일, New Straits Times